

스토킹 행위자의 폭력사용 및 행위 중단 영향 요인: CCTV 영상자료 분석

김중곤* · 손은아**

국 | 문 | 요 | 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스톱킹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스톱킹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스톱킹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조사자료 및 판결문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개별 사건의 상황적 맥락과 당사자들 간의 실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의 상황적 맥락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튜브에 공개된 스톱킹 현장 CCTV 영상 30개 및 관련 기사 등을 활용하여 스톱킹 행위자의 폭력사용 및 행위 중단 영향요인을 질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 특성 요인, 공간적 특성 요인, 관계적 특성 요인이 가해자의 불완전한 상황판단을 통해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피해자의 언어적, 물리적 대응 방식 및 주변인의 개입이 스톱킹 행위의 중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스톱킹 관련 범죄 예방 대책 및 피해자의 방어 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9.30.3.135>.

❖ 주제어 : 스톱킹, 여성 대상 범죄, CCTV, 합리적 선택이론, 질적 연구

**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E-mail:goni20@kmu.ac.kr

** 제 2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0월 21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스톱킹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2023년 7월 11일에는 스톱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의를 내세운 가해자의 추가적인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스톱킹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스톱킹 행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조제성 등, 2022).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스톱킹 행위의 개념에 포섭된다. 따라서 스톱킹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스톱킹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그 동안 연구자들은 스톱킹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조사자료(곽영길·임유석·송상욱, 2011; 김은영, 2017; 이한울·박지선, 2023; 최태영·홍승표, 2023), 판결문(강소영·김한술, 2021; 김성희·성현준, 2021; 한민경, 2021; 강소영, 2022; 박승원·이수정, 2022; 심혜인·김소현, 2023), 성폭력상담소 상담자료(김잔디, 2015) 등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스톱킹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후 기억이나 가정적 상황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가해자의 의도가 실제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황적 맥락임에도(Felson & Clarke, 1998), 많은 연구들이 스톱킹 행위가 일어나는 개별 사건의 상황적 맥락과 당사자들 간의 실제 상호작용까지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범죄 발생 여부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 각자가 지닌 개별적 특성뿐 아니라 현장의 상황적 맥락과 이들 간 상호작용의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Eck & Weisburd, 1995; Meier et al., 2001)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assauer & Legewie, 2016; Nassauer, 2018). 이러한 연구들은 2차 가공이나 망각에 따른 오염 없이 현장의 상황적 역학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CCTV 영상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행동 및 상호작용, 주변 환경 등 상황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튜브에 공개된 스톱킹 현장 CCTV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톱킹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범행의 진행 및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스톱킹으로부터 비롯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스톱킹 행위의 상황적 맥락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합한 피해자, 감시의 부재가 한 장소에서 합치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감시의 부재는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요인으로, CCTV를 증설하고 경비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은 모두 이 감시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요소가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시점에 범죄자와 피해자가 마주친다면 어떻게 범죄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을까?

범죄 현장의 구체적, 상황적 맥락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CCTV에 녹화된 편의점 강도 영상들을 분석한 Nassauer(2018)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감정표현을 했을 경우 범행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각본을 따르는데(Goffman, 2005), 피해자가 이러한 각본에 따르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할 경우 범죄자 역시 계획대로 범행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Lindegardd 등(2015)은 유사한 관점에서 범죄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노상강도 가해자들을 인터뷰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기대가 가해자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강도 착수 단계에서 범죄자의 폭력사용 여부는 피해자의 예상되는 저항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강도 진행 단계에서 범죄자의 폭력 지속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저항하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피해자의 행위 역시 가해자의 행위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Luckenbill(1981)은 강도 사건에서 범죄자가 폭력을 쓰거나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이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Petrosino 등(1997) 또한 피해자가 부상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는 상황적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Meier 등(2001)은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하려면 개별 사건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개별 사건을 분석단위로 하여 해당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맥락을 고찰하면, 범죄발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Meier 등(2001)은 미시적 관점에서 시간과 장소, 감시의 여부, 당사자들 간의 관계(각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 등)를 이러한 사건의 맥락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eyne(2016)는 이러한 Meier 등(2001)의 주장에 기반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스토킹 사건의 맥락을 구성 짓는 요소로 가해자, 피해자, 가·피해자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 발생 시간 및 장소, 감시 또는 보호의 여부를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스토킹 사건의 맥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상세히 고찰해 보겠다.

2. 스토킹 행위자의 의사결정 영향요인

범죄자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죄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과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의 크기, 범행 대상의 취약성, 감시 수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범죄자 자신의 성적 욕구, 중독 여부, 감

정, 주취 상태 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Cornish & Clarke, 2008).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말하는 ‘합리’란 개별화되고 불완전한 상황판단을 전제한다. 이는 고전주의 억제이론과 대비되는 합리적선택이론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 상황에 대비해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주변에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만한 행인은 없는지, 경찰이나 CCTV에 적발될 염려는 없는지 등 다양한 상황 요인이 스토킹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스토킹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상당수의 스토킹 행위가 지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한다(Bjerregaard, 2000; Spitzberg & Cupach, 2007). 202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사건 818건 중 229건이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였으며, 197건이 타인, 314건이 애인, 친족, 친구, 직장 관계자 등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지인은 스토킹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이 많은 이유는 범죄자 자신이 지닌 욕구, 감정, 충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토킹 행위자 개개인의 의사결정은 행위의 동기 및 개인적 특성, 개인이 지닌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라도 모든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사결정이 최적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Hastie & Dawes,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거나, 음주, 약물,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에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강소영, 2022). 이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선택을 비롯한 스토킹 행위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충동적이고 불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스토킹 행위자는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 범행 대상의 취약성, 감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완전하지 않으며 스토킹 자신이 지닌 욕구, 충동성, 폭력성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3. 피해자 및 주변인의 대응과 스토킹 피해

피해자의 특성 및 행위에 대한 이해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피해자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며(Cohen & Felson, 1979),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Nassauer, 2018). 이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터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Lindegaard, Bernasco, & Jacques, 2015).

스토킹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다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스토킹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들은 대체로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Ullman과 Knight(1991)는 피해자의 저항이 강력할수록 심각한 부상이나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Chiu 등(2021) 또한 피해자의 저항이 성범죄를 멈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저항이 늘 범죄 피해를 줄이는 것은 아니며 저항의 종류나 가해자,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강력한 신체적·언어적 저항, 무기를 이용한 저항, 도망 등은 성범죄를 중단하는데 효과적이나, 부드러운 언어적 저항은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Ullman & Knight, 1991; Zoucha- Jensen & Coyne, 1993). 또한 가해자가 폭력으로 범행을 시작한 경우 끝까지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Balemba et al., 2012). 이는 가해자가 지닌 폭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피해자의 저항이 오히려 더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여 제압을 시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에 더 폭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된 바 있다(Balemba et al., 2012). 한편 일부 연구들은 성범죄에 있어 성인 피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보다 심각한 폭력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Scott & Beaman, 2004; Weaver et al., 2004),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Balemba et al., 2012).

Nassauer(2018)는 범죄현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양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관찰되는 의식(ritual)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역할과 상황에 맞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행동하며, 대개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은 당황할 것이고 그 역시 비정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범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미국 애틀랜타의 강도 사건 영상을 보면, 강도가 가게에 들어와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강도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인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며 순응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틈을 타 필요한 돈과 물건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반응에 당황한 강도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한다¹⁾.

한편 주변인의 대응 역시 스톱킹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주변인은 남녀가 수반된 범죄 의심 상황에서 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Levine, 1999).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처럼 명백히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는 이에 따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입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Nicksa, 2014). 또한 주위의 다른 누군가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는 등 책임이 분산될 경우 주변인이 개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으며, 개입으로 인해 자신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중곤·이희진, 2021).

Ⅲ.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및 연구 설계

이상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톱킹 행위가 폭행, 성폭행 등 폭력행위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스톱킹 행위가 중단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 유튜브 영상 참조(<https://youtu.be/kmWH3nDXibs?si=JngzSsQtrImkI5Fk>)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고안된 근거이론은 단순히 현상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이론을 추출해 내는 귀납적 연구방법이다(권정민, 2021).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행위자의 폭력사용 및 행위증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반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행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행위는 스토킹 행위이다. 스토킹 행위는 다음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영상분석에 적합하다. 첫째,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는 상호역동적이다(이창한, 2009). 즉, 행동이나 환경의 미묘한 변화는 가해자의 판단 및 행위,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법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작성된 판결문이나 정형화된 질문에 따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자료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를 담기 어렵다.

둘째, 스토킹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의 존재 여부나 구체적 경과를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상자료는 피해자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의 상황적 맥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셋째, 스토킹 행위는 영상 자료 외에 그 행위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은밀하게 따라다니거나, 행인이 없는 골목에 숨어 지켜보는 등의 행위는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며, 영상 외에 특별한 물증을 찾기 어렵다.

3. 연구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핵심 분석 자료는 유튜브에 공개된 스토킹 행위 CCTV 영상이다. 그 밖에 영상에 나타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관련 기사를 추가로 활용한다. 영상자료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추출하였다. 우선 연구자 2인이 각자

의 판단에 따라 유튜브 키워드 검색을 하여 CCTV장면을 담고 있는 영상을 추출하였다. 이후 회의를 거쳐 중복되는 영상 및 재연 영상 등을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는 영상 30개를 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 sampling)에 따라 선정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스톱 CCTV, 스톱 CCTV, 성범죄 CCTV, 성폭행 CCTV, 성추행 CCTV, 스톱 영상, 스톱 영상, 성범죄 영상, 성추행 영상 등이다. 아래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영상을 나열한 것이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영상

연번	유튜브 제목(중략)	영상URL
1	주택 귀갓길	https://youtu.be/BucaZF-gteE
2	지하철 역부터	https://youtu.be/ycbtPJ9u5Fo
3	아파트 귀갓길	https://youtu.be/5gyONHix5dg
4	아찔했던 1초	https://youtu.be/eRVjUBJYCMno
5	귀갓길	https://youtu.be/dyQJBxialHg
6	상동	https://youtu.be/dyQJBxialHg
7	남의 집	https://youtu.be/Apl4vGOEdtc
8	도어록에	https://youtu.be/AzGYMvE6t2w
9	스토킹범	https://youtu.be/fIL3O35hVUM
10	문 앞에	https://youtu.be/G1nezUJ7zWM
11	스토킹 당한	https://youtu.be/hAWkpG-vt1E
12	반지하	https://youtu.be/Ig-Phail5OA
13	스토킹 당했다	https://youtu.be/1GgGvO3s3fl
14	1층 창문	https://youtu.be/a3O3ueFKvOk
15	<실화 pick>	https://youtu.be/BlqN06zeeYU
16	안심할 수	https://youtu.be/Va6EhzmusTo
17	홍대 거리서	https://youtu.be/kaaqbjRdBW8
18	신림동 원룸	https://youtu.be/BliYY4193Xc
19	“살려주세요”	https://youtu.be/OLOK3NUh8y4
20	전자발찌	https://youtu.be/E3YvshdWwQs
21	만취여성	https://youtu.be/clQ4gUUpobo
22	복도	https://youtu.be/GSvxyS5Dqi4
23	귀가 여성	https://youtu.be/RonjwNjqXbA
24	엘리베이터	https://youtu.be/2gYMEFgpxPM
25	벌건 대낮에	https://youtu.be/jMfDKndTMpY
26	귀갓길 여성	https://youtu.be/KoCFsAw6Slk
27	엘리베이터에서	https://youtu.be/kelxY9INktU
28	부산 돌려차기	https://youtube.com/shorts/9TB03UoeINs?feature=share
29	비밀번호	https://youtu.be/mM5kw8RoKU
30	살해 당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fJeia5yRT0k

4. 분석방법: 영상 자료 분석(Video Data Analysis, VDA)

분석은 영상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영상자료 분석 기법은 현장의 상황적 맥락을 연구하기 위하여 Nassauer와 Legewie(2016)가 고안한 기법으로 휴대폰, 드론, 바디캠, CCTV 등 다양한 장비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상 및 관련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피해자의 특성 및 행동, 주변인 개입 여부 등을 코딩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코딩의 유형 및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코딩의 유형 및 내용

연번	코딩 유형	코딩 내용
1	발생 일자	날짜(년, 월, 일)
2	발생 시각	시각(시, 분)
3	발생 장소	장소(도시, 법정동 등)
4	가해자 행위유형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아서기,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문자 등 전송하기, 물건 보내기, 훼손하기, 주거지 침입
5	폭력수반여부	폭력행사, 폭력불행사
6	상황 전환 시점	엘리베이터 탄 후, 엘리베이터 내린 후, 원룸 침입 후, 노상에서 대화 후, 공동현관 진입 후
7	발각가능성	주위 행인, 불켜진 상가, 근접CCTV존재, 다수 CCTV노출
8	가해자 특성	전과, 높은 폭력성, 높은 범죄성, 주취상태, 성폭행 목적 뚜렷, 복면 등 얼굴가림
9	공간적 특성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앞, 복도식 아파트, 원룸 내, 빌라 앞, 오피스텔 내, 이면도로, 미용실 내, 상가 화장실
10	가·피해자 관계	전 연인, 학교 선배, 직장 동료, 기타 지인, 모르는 사이
11	피해자의 대응 및 태도	단호한 언어적 표현, 비명, 강한 저항, 순간적으로 벗어남, 전 화하는 척, 탈출시도, 쫓아감, 머뭇거림, 소극적으로 뿌리침
12	피해자의 대응시기	폭행 전, 폭행 후, 기타 유형력 행사 전, 기타 유형력 행사 후
13	주변인 개입 여부 및 방법	주변인 없음, 주변인 있지만 개입 많음, 소리듣고 뛰어나옴, 제지, 신고

IV. 연구결과

1. 스톱킹행위가 폭력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가해자의 불완전한 상황판단

분석한 30개 사례 중, 스톱킹 행위가 폭행, 성폭행(미수포함), 기타 물리력 사용 등 폭력행위로 발전한 사례는 총 13건이었다. 13건 중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23번 사례를 제외한 12건의 사례에서 ‘가해자의 불완전한 상황판단’ 또는 ‘발각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가 관찰되었다. 17번, 19번, 26번, 30번 사건의 경우, 주위에 행인들이나 문을 닫지 않은 상가가 있는 등 범행 발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개의치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019년 6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 이면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 여성의 앞을 막아선다. 여성은 해당 남성을 피해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챈 후 무엇인가 말을 건넨다. 여성은 이에 웅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만 남성이 손목을 놓지 않는다. 잠시 후 남성은 한 손으로 여성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여성의 허리 부위를 감싼 채 인근 건물 입구로 데려간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한 여성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여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지만 그 누구도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가해자 역시 이들 주변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행위를 지속한다(26번).

22번과 24번의 경우, 주민 다수에게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복도식 아파트임에도 폭행을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24번과 27번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발각 가능성이 높음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022년 9월 7일 19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내에서 한 남성이 교복 입은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다. 잠시 후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남성은 흥기로 위협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한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꼭대기 층으로 이동시킨 후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학생에게 내리라고 독촉한다. 학생이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복도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고, 남성은 그대로 계단을 이용해 달아난다. 이후 남성은 같은 아파

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2세의 회사원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음주, 마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27번).

20번, 28번 사례에서는 정면에 CCTV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관찰된다. 18번, 21번 사례 역시 CCTV에 발각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거나 담 위로 올라가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등 과감한 행위를 지속한다. 15번 사례의 경우 폭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CCTV를 보고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하는 등 발각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된다.

나. 가해자의 내재적, 상황적 특성

한편 관련 기사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영상 속 가해자들의 특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20번과 28번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해자의 내재된 폭력성 또는 충동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전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를 수반하였다(18번, 23번, 27번). 이렇듯 중한 행위를 수반하는 범죄자들은 높은 수준의 폭력성과 충동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Moffitt, 1993). 또한 17번, 19번, 26번의 경우 가해자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주취 상태가 폭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명석·서경현, 2003). 종합해 볼 때 가해자의 내재된 폭력성, 충동성(내재적 특성), 주취 상태(상황적 특성)가 심각한 폭력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20번은 가해자의 폭력성 및 충동성이 잘 나타나는 사례이다.

2018년 1월 3일 여성 미용사가 혼자 있는 경기도의 미용실에 한 남성이 들어와 염색을 요구한다. 염색약을 다 바른 미용사가 샴푸실로 들어가자 남성이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다. 여성이 샴푸실 밖으로 나와 달아나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붙잡아 머리를 가격하는 등 심하게 폭행한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성폭행을 하지 못한 남성은 준비해 온 테이프로 피해 여성의 손발을 묶은 후 미용실 밖으로 나간다. 가해자는 성범죄 신

상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0번).

다. 밀폐된 좁은 공간

폭력으로 발전한 13건의 사례에서 모두 관찰되지는 않지만, 좁은 공간에 가·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8번, 23번은 원룸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22번, 24번, 27번은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경우였다. 20번은 미용실 안에 피해자인 여성업주와 가해자 단둘만 있었던 경우이며, 19번, 28번은 건물 상가 내, 오피스텔 공동현관 내에 가·피해자 단둘만 있었던 경우이다. 21번의 경우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밀폐된 공간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로 한 남성이 접근한다. 이 남성은 왼팔로 여성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가격한 후 쓰러진 여성에게 계속해서 발길질을 가한다. 이후 여성을 들쳐 업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당시 CCTV는 사건현장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상황을 상세히 촬영하고 있었으나,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28번).

즉, 밀폐된 좁은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 등 높은 발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폭력의 정도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가해자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13번은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였는데, 가해자는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차고, 하루 수백통씩 전화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30번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거부하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니던 중 피해자가 탈출하려 하자 붙잡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30번 사례의 경우 신고자가 6명에 달할 정도로 목격자가 많았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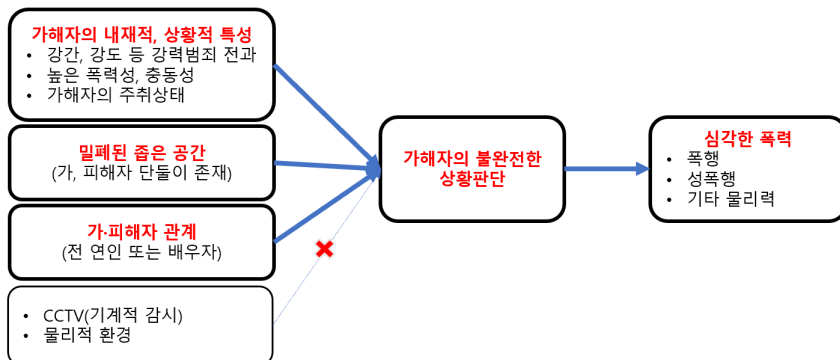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인일 경우에는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복면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등 신분이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엿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주위를 맴도는 형태의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는 폭력의 정도가 일관되지 않았다.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가 있는 반면, 주위를 맴도는 단계에 머무르는 사례 또한 존재하였다. 이 경우 폭력의 정도는 가해자의 폭력성, 충동성 등 가해자 본연의 내재적 특성에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 소결

종합해 볼 때, 가해자의 특성 요인, 밀폐된 장소라는 공간적 요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요인이 단독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가해자의 불완전한 상황판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심각한 폭력행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CCTV 등 기계적 감시, 물리적 환경 구조(복도식 아파트, 주위 영업 중인 상가의 존재) 등은 가해자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토킹 행위와 폭력 간 인과관계 구조



2. 스톱킹 행위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단호한 언어적 대응

1번, 5번, 6번의 사례에서, 스톱킹 행위가 폭력 등 심각한 단계로 진입하기 전 피해자가 단호한 언어적 대응을 한 경우 스톱킹 행위를 중단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002년 일자불상 새벽 4시 20분경 골목길에서 여장한 남자가 퇴근하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간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피해 여성이 뒤돌아서서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여기 CCTV 있어요” 등의 말을 하자,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고 하며 현장을 벗어났다(1번).

2019년 6월 18일 19시 50분경 피해자는 골목길에서부터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스톱킹 행위자에게 등을 돌려 “여기사세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스톱킹 행위자는 “네”라고 대답한다. 피해자는 “그럼 먼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스톱킹 행위자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5번).

2019년 6월 19일 새벽 5시 40분경 피해자는 자신을 뒤따라 급히 엘리베이터에 탄 스톱킹 행위자에게 “왜 버튼 안 누르세요?”라고 하자 당황하며 급하게 버튼을 누르고 추가적인 스톱킹 행위를 하지 못한다(6번).

반면 피해자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행위자가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16번, 26번). 16번 사례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척하자 남성은 잠시 걸음을 멈춘다. 하지만 이후 남성은 공동현관에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는 등 더 대담하게 행동한다. 26번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인사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해 보지만 가해자가 완력을 사용하여 끌고 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9년 일자불상 새벽 5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촌 골목길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 피해 여성이 담벼락에 숨어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척을 한다. 이를 본 가해 남성은 잠시 몸을 돌려 돌아가는 척하더니 다시 나타나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을 지속한다. 남성은 빌라 안에서 여성의 남자친구가 나오자 당황하여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난다(16번).

나. 비명 및 강한 저항

폭력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비명이나 강한 저항이 스토킹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2번 사례의 경우, 행위자가 집 앞까지 따라온 단계에서 피해 여성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8번 사례에서 행위자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하는 도중에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25번 사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만진 행위자를 피해자가 맹렬히 뒤쫓아가자 놀라 도주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022년 4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복면을 쓴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른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붓을 이용해 밀가루를 바르기도 하였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양팔만 신은 채 발소리를 죽여 건물 밖으로 나아간다. 이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힌다. 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3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다(8번).

한편 이미 폭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저항을 해도 쉽게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멈추더라도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명과 저항은 성폭행으로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으며, 주변인의 개입을 불러왔다. 18번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폭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19번 사례의 경우, 술에 취한 남성에게 끌려가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남성은 행위를 지속했고, 주변 상가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와 개입한 후에야 멈추었다. 22번과 24번 사례의 경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주민들이 나올 때까지 폭행이 계속되었다.

2019년 7월 11일 새벽 1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원룸촌에서 한 남성이 길을 가는 여성 뒤를 따라가거나 담장 위로 올라가 침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결국 빌라 화장실을 통해 한 원룸에 침입하여 샤워하고 있던 여성에게 범행을 시도한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는데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지 못하고 도주한다(18번).

2021년 2월 17일 밤 11시경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다. 여성이 달아나지만 상가입구에서 붙잡혀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지만 폭행은 계속된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상점 주인 및 종업원이 뛰어나와 가해남성을 제지하자 상황이 종료된다. 이후 가해남성은 법원공무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19번).

다. 순간적인 벗어남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가해자가 당황하여 행위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3번, 4번).

2002년 일지불상경 1번 사례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여장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선다. 수상함을 눈치 챈 여성은 엘리베이터 도착 순간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린다. 당황한 남성은 여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단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후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여성의 행방을 추적한다(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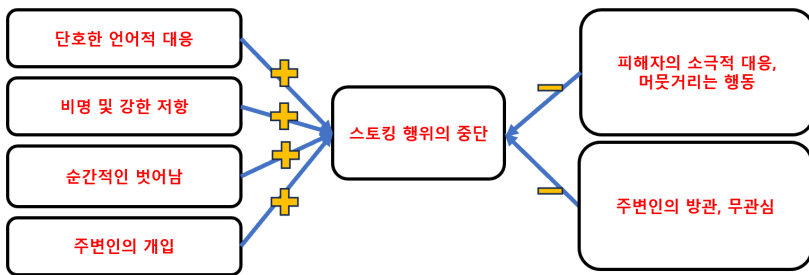
라. 주변인의 개입

한편 주변인이 개입하자 대부분의 스톱킹 행위자들이 행위를 멈추었다(12번, 16번, 22번, 24번, 27번), 다만 주변인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주변인의 존재에 이렇듯까지 않고 스톱킹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26번). 26번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다소 머뭇거리며 확실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성 한 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지만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으며, 다른 여성 행인은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은 해당 상황이 스톱킹 상황인지, 서로 아는 남녀 간의 단순한 실랑이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폭력행위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단호한 언어적 대응, 비명 및 강한 저항, 순간적인 벗어나, 주변인의 개입이 스톱킹 행위의 중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피해자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스톱킹을 지속하거나 가해자의 행위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주변인이 존재하지만 상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톱킹 행위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스톱킹 행위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결론 및 논의

개별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사건의 상황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당사자들의 내재적 특성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 및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개별 당사자의 판단 및 행위의 시작, 지속, 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결문이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분석 자료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Nassauer와 Legewie(2016)가 고안한 영상 자료 분석 기법은 개별 사건의 상황적 맥락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유튜브에

서 찾은 스토킹 현장 CCTV 영상 30개를 분석함으로써 스토킹 행위가 폭력으로 발전하거나 중단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해자가 지닌 내재적 특성뿐 아니라 상황적·장소적 요인, 가·피해자 간의 관계가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완전한 판단이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을 행사한 스토킹 행위자들은 발각가능성이 높은 상황적 맥락 속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일부 가해자는 CCTV나 주변인의 존재 등 발각가능성이 높은 물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영상 및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불완전한 상황판단은 가해자가 지닌 높은 폭력성과 충동성, 밀폐된 좁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특성, 전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자의 의사결정이 이익과 처벌의 균형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대상의 취약성, 감시 수준, 가·피해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상황 요인 및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스토킹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상황에 어떠한 구체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나름의 인과관계 구조를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영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스토킹 행위의 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단호하고 분명한 언어적·물리적 대응은 스토킹 행위의 중단으로 이어졌으나, 소극적이고 머뭇거리는 행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저항이 강력할수록 가해자가 성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Chiu et al., 2020), 성범죄 상황에서의 피해가능성이 줄어들며(Ullman & Knight, 1991), 부드러운 언어적 저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Ullman & Knight, 1991; Zoucha-Jensen & Coyne, 1993)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 역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돌아서서 나가버리자 가해자는 당황하며 피해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패턴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일반적

인 패턴을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당황하여 비정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는 Nassauer(2018)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또한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게 하였으나, 상황적 모호함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방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감시인의 존재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능력과 의지를 갖춘 감시인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Reynald, 2010). 또한 상황적 모호함이 주변인의 개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 역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김중곤·이희진, 2021).

이상 도출한 이론적 함의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먼저 CCTV 등 기계적 감시의 존재나 물리적 환경요인은 스토킹이 폭력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대한 만큼의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반면, 능력과 의지를 갖춘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충동 범죄에 CCTV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Welsh & Farrington, 2009)나 물리적 환경설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Merry, 1981)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CCTV와 같은 기계적 감시 및 셉테드에 무분별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장소별 발생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적 감시와 인적 감시를 적절히 혼용하는 범죄예방 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내재적 특성이 폭력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 충동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시와 우선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스토킹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떠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극적이고 머뭇거리는 태도나 완곡한 거절보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이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저항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방식으로 가해자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민들이 주변인으로서 스토킹 행위나 성범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Green Dot 프로그램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성범죄가 일어나려고 하는 위기 상황인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김중곤·이희진, 2021).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CCTV 영상을 분석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스톱킹 행위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상이 범행 상황의 일부만을 담고 있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 행위자들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자료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 요인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CCTV에 개입치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스톱킹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CCTV를 이용한 스톱킹 행위자의 행동패턴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진단-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1), 55-84.
- 강소영, 김한솔. (202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159-186.
- 곽영길, 임유석, 송상욱. (2011).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미국·일본·한국의 스토킹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7(3), 47-76.
- 권정민. (2021). 코로나 시대 초등원격수업이 부실한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초등교육*, 32(1), 399-424.
- 김명석, 서경현. (2003). 폭력범죄자의 반사회성과 문제음주 및 음주동기와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1), 53-59.
- 김성희, 성현준. (2021).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49-74.
- 김은영. (2017). 스토킹상황에서 신체폭력 발생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4(2), 29-52.
- 김잔다. (2015). 일본의 스토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49), 200-238.
- 김중곤, 이희진. (202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변인 개입에 관한 연구-개입각분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125-160.
- 박승원, 이수정. (2022).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스토킹 행위 유형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 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3), 23-55.
- 삼혜인, 김소현. (2023). 스토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9(1), 107-126.
- 이창한. (2009). 스토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1), 93-119.
- 이한울, 박지선. (2023). 온라인 스토킹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3(1), 231-256.

- 조제성, 이선형, 임정재, 강소영, 김다은. (2022). 스톱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2-AB-04.
 - 최태영, 홍승표. (2023). 스톱킹 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스톱킹 허용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연구, 22(2), 245-268.
 - 한민경. (2021). 법정에 선 스톱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톱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65-92.
 - YTN. (2023).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강도 들어왔는데, 세상 쿨한 직원들 반응[뉴스캐치]. URL: <https://youtu.be/kmWH3nDXibs?si=JngzSsQtrImkI5Fk> (검색일자: 2023.08.26.)
-
- Balemba, S., Beauregard, E., & Mieczkowski, T. (2012). To resist or not to resist? The effect of context and crime characteristics on sex offenders' reaction to victim resistance. *Crime & Delinquency*, 58(4), 588-611.
 - Bjerregaard, B. (2000). An empirical study of stalking victimization. *Violence and victims*, 15(4), 389-406.
 - Cheyne, N. (2015). A situational approach to stalking perpetration, victimisation and psychological reactions to stalking (Doctoral dissert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iffith University).
 - Chiu, Y. N., Leclerc, B., Reynald, D. M., & Wortley, R. (2021).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sexual offenses against women: Offenders tell us what works and what doesn't.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5(9), 1055-1076.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8-608.
 - Cornish, D. B., & Clarke, R. V. (2008). *The rational choice perspective*. In R. Wortley & L. Mazerolle (Eds.), *Environmental criminology and Crime Analysis*(pp.21-47). Devon, UK: Willian Publishing.
 - Eck, J. E., & Weisburd, D. (Eds.). (1995). *Crime and place* (Vol. 4, pp.1-34).

-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Felson, M., & Clarke, R. V. (1998). Opportunity makes the thief.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98(1-36), 10.
- Glaser, B., & Strauss, A. (1967). Grounded theory: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ociology 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2(1), 27-49.
- Goffman, E. (2005). *Interaction ritual: Essays in face to face behavior*. AldineTransaction.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stie, R., & Dawes, R. M. (2009). *Rational choice in an uncertain world: The psychology of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Sage Publications.
- Lindegaard, M. R., Bernasco, W., & Jacques, S. (2015). Consequences of expected and observed victim resistance for offender violence during robbery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2(1), 32-61.
- Levine, M. (1999). Rethinking bystander nonintervention: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evidence of witnesses at the James Bulger murder trial. *Human Relations*, 52, 1133-1155.
- Luckenbill, D. F. (1981). Generating compliance: The case of robbery. *Urban Life*, 10(1), 25-46.
- Meier, R. F., Kennedy, L. W., & Sacco, V. F. (2001). Crime and the criminal event perspective. In R. F. Meier, L. W. Kennedy & V. F. Sacco (Eds.),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Crime: Criminal Events and Crime Analysis.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ies* (Vol. 9, pp.1-27).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Merry, S. E. (1981). Defensible space undefended: social factors in crime control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Urban Affairs Quarterly*, 16, 397-422.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Nassauer, A. (2018). How robberies succeed or fail: Analyzing crime caught on CCTV.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5(1), 125-154.
- Nassauer, Anne and Nicolas Legewie. (2016). "Visual Data Analysi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 Novel Trend in Studying Behavior." Paper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Seattle, USA.
- Nicksa, S. C. (2014). "Bystander's willingness to report theft, physical assault, and sexual assault: The impact of gender, anonymity and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2), 217-236.
- Petrosino, A. J., Fellow, S., & Brensilber, D. (1997). Convenient victims-A research note.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8(4), 405-420.
- Reynald, D. M. (2010). Guardians on guardianship: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supervise, the ability to detect potential offenders, and the willingness to interven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7(3), 358-390.
- Scott, H. S., & Beaman, R. (2004). Demographic and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injury, resistance, completion, and charges brought in sexual assault cases: what is best for arrest?. *Violence and Victims*, 19(4), 479-494.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7). The state of the art of stalking: Taking stock of the emerging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1), 64-86.
- Ullman, S. E., & Knight, R. A. (1991). A multivariate model for predicting rape and physical injury outcomes during sexual assa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724.
- Weaver, G. S., Wittekind, J. E., Huff-Corzine, L., Corzine, J., Petee, T. A., &

Jarvis, J. P. (2004). Violent encounters: A criminal event analysis of lethal and nonlethal outcome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0, 348-368.

Welsh, B. C., & Farrington, D. P. (2009). *Making public places safer: Surveillance and crime prev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Zoucha-Jensen, J. M., & Coyne, A. (1993). The effects of resistance strategies on rap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3(11), 1633-1634.

Factors that affect stalker's use of violence and
cessation of stalking behaviors:
Analyzing Cases Caught on CCTV

Kim, Joonggon* · Son, Eun-A**

Violent crimes against women, including assault, sexual offenses, and homicide, often begin with the act of watching, following, or approaching, all of which are encompassed by the concept of stalking. Therefore, any efforts to understand stalking are essential not only to prevent stalking itself, but also to prevent more serious violent crimes. Nevertheless, previous studies analyzing self-reported surveys and court cases have limitations in examining the situational context of individual cases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arties.

To fill this void, we analyzed CCTV footage that contains the situational dynamics of the stalking scenes. Using 30 CCTV videos of stalking scenes on YouTube and related newspaper articles, we qualitativel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ed stalkers' use of violence and cessation of stalking.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ertain perpetrator characteristics,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the use of violence through their effects on the perpetrator's decision-making. Second, the way victims or bystanders respond to stalking behaviors influenced the cessation of stalking behaviors. Based on these results, effective stalking-related crime prevention and victims' defense strategies were discusse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Keimyung University

** Ph.D.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Seoul)

❖ Key words: stalking, crimes against women, CCTV, rational choice theory, routine activity theory, qualitative research